



다운회의 작업활동센터는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훈련을 수행하는 곳이다.



'저 위에 있는게 뭘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참을 살피더니 측정기가 움직이자 한사코 측정을 거부했던 친구, 그러나 실봉수 직원의 시범과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결국은 측정에 성공하였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 아름다운 봉사

- 서울센타의 '다운회 작업활동센터' 무료검진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

“영화 말아톤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들에게 장애인의 모델로 자리잡을까봐 걱정됩니다. 장애인 삶의 극히 일부분만이 보여졌을뿐 이거든요. 장애인과 그들의 부모가 겪는 고충이나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하는 아픈 상처에 대해서도 꼭 생각 해주셨으면 해요.”

다운회 작업활동센터의 우정선 선생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영화 ‘말아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근조근 털어놓는다. 다운인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 보장제도의 확충이나 교육 시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한다. 이들도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를 맞은 다운회 무료검진

3월 하교도 25일이나 지났건만, 봄을 잔뜩 시샘할 모양으로 철부지 꽃샘추위가 한창이었다. 다운복지관에 도착하여 움츠렸던 몸으로 쪽 기지개를 펴는 순간 정문의 한 곳으로 시선이 꽂힌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정이 듬뿍 담긴 환영에 어느덧 마음이 녹녹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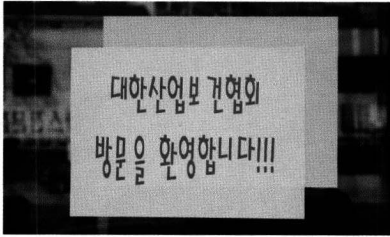
협회가 다운회 작업활동센터의 무료검진을 실시한지 올해로 5년이 되었다. 작업활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에서 중증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직업평가·조립 및 단순가공 작업을 포함한 직업적응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눈이 마주치자 스스럼없이 “안녕하세요” 꾸

1. 작업활동센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결 수월하게 시력측정이 이루어졌다.
2. '이건 무섭지 않아요.' 혈압측정을 하고 있는 한 근원 간호사에게 환한 웃음으로 답례를...
3. 대기자가 많아지면서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청력을 담당했던 김보라 간호사는 자세한 설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4. 다운인은 혈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채혈이 힘들지만, 송인숙 병리사는 다운회 건강진단에 세 번째 참여한 고참답게 친구들을 다독거리며 채혈을 하였다.
5. 작업활동센터에서는 취업반과 훈련반으로 나누어 직업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즘은 크린백 가공작업을 하고 있다.



벽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 해가 지났어도 밝고 깨끗한 표정은 여전해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동화되기에 충분했다.

건강진단이 시작되자 다운회 친구들은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청력검사의 줄이 유난히도 길어졌다.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기자가 많아진 것이다. 김보라 간호사의 애쓰는 모습을 주시한 작업활동센터 선생님은 '정상인보다 반응이 늦기 때문에 청력검사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귀띔한다.

채혈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다운증후군의 경우 운동 발달이 늦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채혈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활동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고, 친구들에게 과자를



손에 쥐어주고 힘을 주게끔 유도하여 어렵사리 채혈을 마쳤다.

“이 주사바늘은 가늘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무섭다며 겁먹은 얼굴로 채혈을 거부하는 친구에게는 용기를 주었고

“아프지 않았지요? 잘 했어요.”

채혈 후에는 칭찬으로 다독거리는 송인숙 병리사는 다운회 건강진단에 세 번째 참여한 고참답게 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서울센타 식구들은 건강진단을 모두 마친 후 '다시 만나자'며 친구들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번 다운회 작업활동센터의 무료검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봉사를 몸소 실천한 서울센타 식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